

[해외축구]퍼거슨 감독 "딕스, 홀로 설 시간이 왔다"

등록 2016.07.05 10:30:55 | 수정 2016.12.28 17:19:02



【서울=뉴스시스】권혁진 기자 = 알렉스 퍼거슨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팀을 떠나기로 결정한 라이언 딕스의 선택을 지지했다.

퍼거슨 감독은 5일(한국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딕스가 홀로 서야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딕스는 지난 2일 맨유와의 29년 인연에 마침표를 찍었다. 수석코치 계약이 1년 남았지만 조세 무리뉴 감독의 합류로 입지가 애매해지자 과감히 새 도전을 선택했다.

퍼거슨 감독은 "딕스는 팀을 맡을 준비가 됐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감독으로서의 딕스를 응원했다. 다만 퍼거슨 감독은 "매번 감독을 갈아치우는 곳을 맡아 스스로를 망치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조언했다.

딕스가 떠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낸 퍼거슨 감독은 무리뉴 감독의 선택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옹호했다.

퍼거슨 감독은 "내가 맨유에 처음 왔을 때 아치 녹스와 함께 왔다. 나는 그를 100% 신뢰했다"면서 무리뉴 감독이 자신과 함께 했던 수석코치를 데려온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퍼거슨 감독은 "만일 무리뉴에게 수석코치가 없었다면 딕스와 함께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hjkwon@newsis.com